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2025. 03. 07.[금]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강재승 비서관(허성무 의원실) 010-3728-7406,

차진솔 비서관(이용우 의원실) 010-5444-3790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생존권 · 노동기본권 · 안전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산업재해 문제, 470억 손해소, 임금차별 등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관련 문제 지적
- 한화오션 생산직 6~70%가 하청노동자...중대재해 빈발과 열악한 처우 계속돼
- 2월 28일에도 하청노동자 1명 사망...산재 은폐 의혹도 제기돼
- 115일째 이어지는 파업...교섭 촉구에도 '협력사에 따질 문제'라며 수개월째 방치
- 민주당, 한화오션 서울사무소 농성장 방문 및 임원진 면담 예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 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안전권 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용우 의원, 허성무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직면한 안전문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임금차별 등 종합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거통고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은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하청)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현재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총만 들지 않았지 계엄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노동자를 통제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한화오션의 부실한 안전관리 사례로 지적했다. 강 부지회장은 "야간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구급차가 아닌 회사 트럭과 오토바이로 이송되어 30분의 골든타임을 놓친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한화오션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2조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위급상황에서 기본적인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며 안전관리와 투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거통고지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어진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노동자들은 종전까지 받아오던 기본급 550%의 상여금을 전액 삭감당했다. 그러나 작년(2024년) 한화오션이 매출액 10조 7760억 원, 영업이익 2379억원을 기록하는 호황을 맞았음에도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협력사에 주는 도급대금이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라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거통고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거통고지회 이학수 교육부장은 "18년을 넘게 일한 숙련공임에도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을 넘기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런 처우로는 누구도 조선소에서 일하려 하지 않아, 결국 빈자리는 저숙련 이주노동자로 채워진다"고 말했다. 거통고지회에 따르면 현재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는 1만 6천 명으로, 이 중 1만 2천 명이 내국인, 4천 명이 외국인이다.

이날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하청노동자들과의 소통·6자 안전협의체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제 해결 ▲470억 손해배상소송 해결 의지 표명 ▲하청노동자 임금교섭을 위한 도급대금 조정 협조 등을 한화오션에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국회 산중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속하게 한화오션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협력업체들에게 임금교섭 여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국회 환노위)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인 원하청 상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생명안전 문제가 한화오션에 응축되어 있다.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하청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화오션의 안전확보 내실화, 하청노조 임금교섭 촉진,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 관해 한화오션 임원진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끝)

[첨부 1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안전권 보장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안전권 보장 기자회견

지난 2월 28일 한화오션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파워그라인더 야간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인은 구급대 차량이 아닌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로 이송되었다. 산재 은폐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 의제를 포함하는 하청지회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2024년 하청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아직까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과의 산업안전 문제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한화오션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자간 안전 협의체 구축을 약속했지만,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2개월에 1회씩만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거나 협의체를 단순 의견 청취 수준으로 간주하는 등 회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47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1월 배임죄 리스크만을 거론하며, 이른바 ‘손배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의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손해액은 470억이 아니라, 547억 원’이라며 금액을 재산정했다. 법원과 하청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저임금 구조 문제도 외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이어졌던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노동자들은 종전까지 받아온 기본급 550%의 상여금을 전액 삭감당했다. 그러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난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협력사들이 원청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건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실질은 곧 원청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은 협력사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옥포조선소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화오션이 협력사들에게 하청노동자 임금 조정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숙련된 하청노동자들은 점점 한국 조선업의 생산현장을 이탈하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어렵게 찾아온 조선업 호경기에 저숙련노동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업재해 은폐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6자 안전협약체 실질적 가동 및 하청노동자들과의 적극 소통으로 조선소 안전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조차 없는 470억 손배소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청노동자 임금교섭 촉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 도급대금 조정에 적극 협조하라.

2025. 3. 7.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